

# Seize the Day에 나타난 사회와 인간

- 加虐的 사회와 被虐的 理想主義者 -

梁 京 柱

## I

K. M. Opdahl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듯이 Saul Bellow도 그의 전 작품 속에서 단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문제는 작가의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큰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 literary proverb holds that every writer has but one story to tell. Perhaps it is more accurate to say that every writer is compelled by a single issue. The novelist's plots and characters, however different, express the same human dilemma; he continually struggles to solve a problem that haunts him. This problem is personal, of course, but it is also... a reflection of the larger society. We are compelled as Lionel Trilling says by the writer whose inner struggle "provides us with the largest representation of the culture in which we, with him, are involved."

Saul Bellow is clearly such a writer.<sup>1)</sup>

사실, Bellow는 그의 첫 장편소설, *Dangling Man*(1944)에서부터 시작하여 단 하나의 문제, 즉 Howard M. Harper Jr.가 "Human life is ultimately a mystery."<sup>2)</sup>라는 Bellow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인생의 "mystery"를 탐구하는 것이 Bellow 문학예술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듯이<sup>3)</sup> 현대사회 속의 인간존재의 문제,敷衍하면 현대라는 비인간화된 사회 속에서도 개인의 가치있는 삶의 영위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어 온 작가였다.

---

1) Keith M.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p. 3.

2) Saul Bellow, *Recent American Fiction*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63), p. 12.

3) Howard M. Harper Jr., *Desperate Faith*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7), p. 6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고에서 다루게 될 *Seize the Day*도, 물론 사실주의 소설이나 자연주의 소설과는 달리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고 비판하기에는 다소 걸맞지 않게 戲畫된 인물, Tommy Wilhelm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Henderson the Rain King*에서처럼 comic touch를 하고 있기는 하나, 현대사회와 인간의 존재문제를 어느 작품 못지 않게 밀도있게 다루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De Bonald가 말한 바 “Literature is an expression of society.”<sup>4)</sup>라는 관점에서 Bellow가 *Seize the Day*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적 성격과 인간의 삶의 양상을 究明하여 *Seize the Day*와 기타 Bellow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Seize the Day*에 나타난 사회의 성격을 분석하여 그 특성이 加虐性(sadism)에 있음을 밝히고, 둘째 가학적 사회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검토하며, 특히 주인공 Wilhelm의 被虐的(masochistic)이며 理想主義的 성향을 분석해 보으려 한다. 셋째는 가학적 사회 속에서 이상주의자의 존재방식을 주로 그의 不適應과 소외의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하게 될 것이다.

## II

Bellow가 *Seize the Day*에서 설정한 작품의 배경은 20세기 자본주의가 이룩한 선진 산업대중사회인 1950년대의 New York이다. 그는 New York에서도 증권금융의 중심지인 Broadway를 중심으로 Tommy Wilhelm이라는 유태계 미국인이 그 사회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정신적·경제적 파국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M. Gilbert Porter 등이 지적하고 있듯이 “the image of a drowning man”을 통하여 보여 주고 있다.<sup>5)</sup>

그러면 Wilhelm을 그러한 파국으로 몰고 가는 New York 사회의 두드러진 사회적 특징은 무엇이며, 그러한 특징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회의 특성은 貨幣志向的이며 物神萬能의인 그 사회의 지배적 心性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연하면, New York 사회의 모든 가치의 척도는 바로 돈이며, Dr. Adler, Dr. Tamkin, Margaret, Mr. Perls, Venice 그리고 Rappaport 등 Wilhelm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물들이 돈을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혈액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듯이, 돈만이 그들의 생존과 자유를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

Tamkin의 말을 빌면, 미국은 정치까지도 사업가만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곳이며(“It’s a businessmen’s government.”)<sup>6)</sup>, New York 사회는 돈을 예찬하며, 그 성스럽고 아름다운 돈이 없는 자는 허수

4) René Wellek and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56), p. 95에서 재인용.

5) M. Gilbert Porter, “The Scene as Image: A Reading of *Seize the Day*,” *Saul Bellow*, ed. Earl Robit,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75), p. 54; Keith M.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p. 96-97; Clinton W. Trowbridge, “Water Imagery in *Seize the Day*,” *Critique*, 9 (Spring 1968), pp. 62-73 참조.

6) Saul Bellow, *Seize the Day* (Penguin Books, 1951), p. 13. The references following each excerpt are to the pages in this edition.

아비가 되고 이 세상을 하직하여야만 하는 사회, 즉 Shakespeare가 *Timon of Athens*에서 말한 “돈만 있으면, 흑도 백으로, 추한 것도 아름다운 것으로, 악도 선으로, 늙은것도 젊게, 비겁한 것도 용감하게 되는”<sup>7)</sup> 그러한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에서 인물들의 주된 관심과 화제는 오직 돈이며, 그들의 최고의 축이 바로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Wilhelm이 사기꾼이며 엉터리 정신과 의사인 Tamkin과 얽히게 되는 것도 그와 동업으로 증권시장에 豚脂(lard)와 호밀에 투기하여 한 몫을 보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고, 이 두 사람의 관심과 대화도 오직 돈과 돈벌이에 있다.

‘The whole secret of this type of speculation,’ Tamkin had told him, ‘is in the alertness. You have to act fast-buy it and sell it; sell it and buy it again. But quick! Get to the window and have them wire Chicago at just the right second. Strike and strike again! Then get out the same day. In no time at all you turn over fifteen, twenty thousand dollars’ worth of soy beans, coffee, corn, hides, wheat, cotton...’ ‘People lose because they are greedy and can’t get out when it starts to go up. They gamble, but I do it scientifically. This is not guesswork. You must take a few points and get out. Why, ye gods!’ said Dr Tamkin with his bulging eyes, his bald head, and his drooping lip. ‘Have you stopped to think how much dough people are making in the market?’

Wilhelm with a quick shift from gloomy attention to the panting laugh which entirely changed his face had said, ‘Ho, have I ever! What do you think? Who doesn’t know it’s way beyond nineteen-twenty-eight – twenty-nine and still on the rise? Who hasn’t read the Fulbright investigation? There’s money everywhere. Everyone is shovelling it in. Money is – is –’

‘And can you rest – can you sit still while this is going on?’ said Dr Tamkin. ‘I confess to you I can’t. I think about people, just because they have a few bucks to invest, making fortunes. They have no sense, they have no talent, they just have the extra dough and it makes them more dough. I get so worked up and tormented and restless, so restless! I haven’t even been able to practise my profession. With all this money around you don’t want to be a fool while everyone else is making. I know guys who make five, ten thousand a week just by fooling around. I know a guy at the Hotel Pierre. There’s nothing to him, but he has a whole case of Mumm’s champagne at lunch. I know another guy on Central Park South – But what’s the use of talking. They make millions. They have smart lawyers who get them out of taxes by a thousand schemes.’(pp. 12-13)

이처럼 “物神(fat gods)”<sup>8)</sup>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도 物化되며, 인간의 가치도 그 교환가치에 의하여 평가된다. Wilhelm을 제외하면 등장인물은 모두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하거나 자신의 속사정을 결코 털어놓는 일이 없다. 그들은 상품이나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며,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길도 그 물건을 교환가치화 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는 길 뿐이다. Wilhelm이 中二層(mezzanine)에서 Rubin을 만났을 때도 두 사람은 물에 잠긴 듯이 보이는 Ansonia 호텔을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다가 입고 있는 shirt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고는 더 이상 할 이야기를 찾지 못 한다.

*Seize the Day*에서는 인간관계의 物化, 즉 비인간화가 가족관계에까지 확산되어 있다. 감정융합을

7) William Shakespeare, *Timon of Athens* (London: Methuen & Co Ltd, 1959), p. 91.

8) Saul Bellow가 “On Isaac Rosenfeld”에서 사용한 用語. Irving Malin, *Saul Bellow’s Fiction*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9), p. 9에서 재인용.

그 결합의 본질로 삼고 또 가족구성원간의 실질적 유대의 근본이 애정과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전통적 가족은 와해되어 Wilhelm과 Adler 사이에서는 감정적 융합이나 애정과 이해의 관계를 찾아 볼 수 없다.

Wilhelm이 부친 Adler에 대한 가장 큰 불만도 자신의 경제적 파국에 대하여 외아들인 자신이 아버지에게 흉금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데, 그리고 부친으로부터 一棼의 정신적 위안이나 관심조차 얻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Wilhelm이 父情이 그리워 “my dad is something of a stranger to me... Where is the familiar person he used to be?”(p. 100)라고 自問하며, 마지막 700弗까지도 투기에서 몽땅 잃어버리고 나서 최후로 Adler를 다시 찾아갔을 때도 따스한 위로의 한마디 말조차 듣지 못하고 돌아서고 만다. 한마디로 말하면, Wilhelm은 Adler에게 자신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애정과 관심을 구하나, Adler는 그의 외아들인 Wilhelm을 애정과 이해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러한 Wilhelm과 Adler의 관계는 “개인주의적 사고와 태도가 가족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내로부터 약화시키고, 정신면에서는 정서적인 인간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일어나는 현대 산업대중사회의 가족제도의 해체위기”<sup>9)</sup>를 예견케 하고 있다.

*Seize the Day*에 나타난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는 物神에 의하여 지배되는 화폐지향적 사회의 物化된 인간관계로서, 가정도 제1차 집단으로서의 Gemeinschaft적인 요소가 감퇴되고 Gesellschaft화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지만 Adler는 Wilhelm을 애정과 이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Wilhelm까지도 교환가치화 하여 추상화시키며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한다. 그는 Perls를 만났을 때도 Wilhelm을 상품처럼 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시해 보이며, Perls도 Wilhelm이란 존재를 그의 수입의 크기로 파악하고 있다.

But he [Wilhelm] had heard the old man bragging to another old man, saying, 'My son is a sales executive. He didn't have the patience to finish school. But he does all right for himself. His income is up in the five figures somewhere.'

'What - thirty, forty thousand?' said his stooped old friend.

'Well, he needs at least that much for his style of life. Yes, he needs that.'(p. 17)

Dr Adler... said, 'My son's income was up in the five figures.'

As soon as money as mentioned, Mr Perls's voice grew eagerly sharper. 'Yes? What, the thirty-two-per-cent bracket? Higher even, I guess?' He asked for a hint, and he named the figures not idly but with a sort of hugging relish. (p. 410)

*Seize the Day*의 배경이 되고 있는 New York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획일화에 있다. 다시 말하면, New York는 화폐 지향적인 物神崇拜의 사회이며, 또한 획일화를 지향하는 사회다.

흔히 사회학자들은 산업대중사회의 특징이 획일화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의 균일화와 일체의 현존조직에 대한 劃一性的 強制, 즉 體制的 均質化, 관료기구의 획일적이고도 기계적인 작업의 강요에 의한 인간의 기계화와 로봇화, 그리고 대량소비물자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의한 心理的 同一視 경향과 개방사회가 갖는 합리성 추구의 경향을 그 예로 든다.<sup>10)</sup> 그러나

9) 金大煥, 『社會學』(서울: 法文社, 1983), p. 83.

10) *Ibid.*, pp. 294-295.

*Seize the Day*에서 나타나고 있는 획일화의 경향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업대중사회의 관료제나 技術(technology)의 사회지배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기 보다는 技術이 사회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생겨나는 구체적 한 양상인 物神이 사회전반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생겨나며, 그 결과 인간이 모든 가치기준을 화폐로 받아들이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Wilhelm을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은 物神에 의하여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균일화 되어 있고, 體制的 均質化와 心理的 同一視 경향, 그리고 합리성 추구의 경향에 사로잡혀 있다. Wilhelm을 제외하면 그 어느 누구도 유일한 가치의 척도로서 그리고 삶을 가능케 하는 단 하나의 수단이자 삶의 목적 그 자체로서 돈을 否定하지 못하며, 否定을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제 이 物神은 이에 저항하는 마지막 한 사람인 Wilhelm 마저도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New York 사회와 인물들은 획일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Herbert Marcuse가 말하는 “일차원적 사회”와 “일차원적 인간”들을 연상케 한다. 다만, Marcuse가 획일화를 지향케 하는 선진산업사회의 새로운 統制形式으로서 技術(technology)을 말하고 있음에 대하여<sup>11)</sup>, *Seize the Day*에서는 사회의 통제형식이 Marcuse가 말한 技術이 산출한 한 양상인 물질적 풍요, 즉 物神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Marcuse의 논리에 따라 작품에 나타난 New York 사회를 설명한다면, New York 사회는 그 사회의 知的 및 물질적 능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지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폭을 지니는 사회다. 이 사회에서는 사회의 새로운 통제형식으로서 技術, 즉 기술이 산출해 낸 物神이 등장하며, 사회의 억압적 통제가 더욱 합리화, 생산화, 기술화, 전문화 되어 갈수록 통제받는 개인들은 Wilhelm을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처럼 자신의 노예상태를 부수고(物神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을 획득하는 수단과 방법은 더욱 더 상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New York 사회는 사회적 통제가 개인의 항의의 밀뿌리까지 스며들 정도로 투입되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조금도 없는 사회며, “따라가기(to go along)”를 거부하는 정신과 정서는 (Wilhelm인 경우가 그러하지만) 신경질적이고 무기력한(病的인)것으로 간주되는 사회다. 더구나 이 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분배 그리고 산업심리학이 각 개인에게 작용하여 그 결과 조절이 아니라 모방을 조장하며, 개인과 그의 사회를 직접 동일화하게 하고 사회 전체와도 동일화하도록 하는 사회다. 다시 말하면, 비판이 마비된 반대 없는 일차원적 사회, 즉 “否定的 思惟”는 패배하고 “肯定的 思惟”와 기술적 합리성이만이 지배하는 획일화의 사회가 되고 있다.<sup>12)</sup>

한편, 이러한 New York라는 일차원적 사회의 화폐지향성과 획일화라는 두가지의 특징은 그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생존하는 개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할 때 加虐性(sadism)이라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Seize the Day*에 나타난 사회적 힘은 사회의 화폐지향적 흐름과 획일화의 경향에 동조치 않는 개인에 대하여 언제나 위협적이며, 그 개인으로 하여금 중압감을 느끼게 하고 질식케 한다. 또한, 그 사회 속에서는 Georg Simmel이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11) Herbert Marcuse, 『一次元的人間』, 車仁錫 譯 (서울:三省出版社, 1977), pp. 20-31.

12) *Ibid.*, p. 103 ff. p. 117 ff. p. 135 ff.

는 “이윤을 위한 인간 상호간의 투쟁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됨”<sup>13)</sup>으로써 만인은 만인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이루어진다.

*Seize the Day*에서 사회와 인간들이 加虐性을 띠게 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Tamkin이 Wilhelm에게 “You [Wilhelm] want to avoid catching the money fever. This type of activity is filled with hostile feeling and lust.... They go on the market with murder in their hearts.”(p. 14)라고 말하고 있듯이 바로 돈에 있다. Tamkin은 계속해서 New York에서의 돈벌이란 殺意에 찬 加虐的 행위임을 말한다.

‘One fact should be clear to you by now. Money-making is aggression. That’s the whole thing. The functionalistic explanation is the only one. People come to the market to kill. They say, “I’m going to make a killing.” It’s not accidental. Only they haven’t got the genuine courage to kill, and they erect a symbol of it. The money. They make a killing by a fantasy. Now, counting the number is always a sadistic activity. Like hitting. In the Bible, the Jews wouldn’t allow you to count them. They knew it was sadistic.’

‘We scientific men speak of irrational guilt, Wilhelm,’ said Dr Tamkin, as if Wilhelm were a pupil in his class. ‘But in such a situation, because of the money, I wished him harm. I realize it. This isn’t the time to describe all the details, but the money made me guilty. Money and Murder both begin with M. Machinery. Mischief.’ (pp. 74–75).

이들, Tamkin이 말하는 바와 같이 행동하는 작품 속의 공격적 인물들이 타인에 대한 加虐的 행위는 마치 콘라드 로렌츠가 말한 인간의 생득적 공격성<sup>14)</sup>이 돈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듯 하다. Tamkin과 Wilhelm의 부인 Margaret를 비롯해서 Wilhelm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공격행위는 “parasite image”를 통하여 나타나며<sup>15)</sup>, 그들은 Wilhelm에게 기생하여 기생충들이 피를 빨아가 듯이 Wilhelm에게서 피와 동일시 되는 돈을 빨아 간다. 더구나 Margaret인 경우는 Wilhelm에게 공동명의 소득신고서에 서명을 거부한다든지, 어린 두 아들의 보험료와 양육비를 계속 요구한다든지, 엄청난 이혼위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Wilhelm의 목을 조이고, 그를 질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 한편, 이러한 공격성을 사회가 인간에게 가하는 현상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Marcuse가 『**否定**』에서 선진산업사회의 공격성을 지적하면서 선진산업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새로운 긴장과 스트레스 등은 過剩抑壓, 즉 문명의 성장과 보존이 아니라 기존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선진산업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sup>16)</sup> 작품 속에서는 物神萬能主義를 지향하는 사회의 흐름에 동조치 않는 인간에 대하여 사회가 가하는 정신적 압력,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

13) Georg Simmel,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in Fris and Mary Josephson, eds., *Man Alive in Modern Society*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2), p. 162.

14) Leslie Stevenson,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일곱 가지 이론』 임철규 譯 (서울: 종로서적, 1981), p. 171에서 재인용.

15) 拙稿, “Saul Bellow의 소설에 나타난 Symbolic Death,” 『濟州大學 論文集』 第15輯, pp. 50–51 참조.

16) Herbert Marcuse, 『**否定**』, 車仁錫 譯 (서울: 三省出版社, 1977), pp. 356–369.

능적 욕구를 오직 사회가 허락하는 방향으로만 해소하거나,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억제·승화하고 배출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강제적 압력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하에 있는 Wilhelm을 보더라도, 그가 육체적으로 성장한 체구에는 정력이 흘러 넘쳐 처치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 점이 오히려 그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듯이, 그의 큰 개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물론 경제적 파국이 그의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의 주체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에너지가 적절한 배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또 통제사회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승화 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

사회의 가학적 성격은 Wilhelm이 사회와 사회의 흐름에 동조하는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그의 정신적 자포자기 상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Wilhelm은 성공한 사람들의 냉소주의적 인생태도를 두려워 하며, 예외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때는 그것을 그들의 냉소주의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가학적 사회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생존하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특이한 부담감으로 무슨 혹(hump)이나 짐같이 그를 억누르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특히 그는 피로가 그로 하여금 생존경쟁에 열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 때면 이런 이상한 중압감을 느끼며, 빛인가 이름지을 수 없는 잡다한 중압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그는 이 사회의 가학적 성격 때문에 자신은 특수한 業苦(peculiar burden)를 짊어지고 굴욕감과 무력감을 느껴가며 억누른 눈물 맛을 보는 것——이것이야말로 진정 진짜 인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 III

필자는 앞 章에서 *Seize the Day*에 나타난 New York 사회가 加虐性을 그 특성으로 하는 화폐지향적이며 획일화를 지향하는 사회임을 말했다. 그렇다면,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성격을 그 사회와 관련하여 검토할 때 등장인물들, 특히 주인공 Wilhelm의 성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합리성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며 사회의 흐름에 긍정적 사유만이 가능한 획일화된 순응사회의 동조형의 인간들이며, 또 하나의 인물 유형은 이러한 否定的의 세력이 없는 일차원적 사회의 理想主義的 逸脫者(deviant)라 할 수 있다.

前者에 속하는 인물들은 Wilhelm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들로서, 주요인물들은 Dr. Adler를 비롯하여 Dr. Tamkin, Margaret, Venice, Perls, Rappaport, 그리고 증권거래소의 German manager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상의 특징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회의 흐름에 동조하며, 그것에 대하여 비판없이 오직 긍정적 사유만을 하는 順應主義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화폐지향적인 획일화 사회의 이 순응주의적 동조형의 인물들은 그 사회의 지배적 흐름인 物神主義的 黃金만능주의의 가치관을 否定없이 그대로 수용하며, 바로 그 화폐를 그 어떤 정신적인 것, 말하자면, 따스한 인간의 감정, 가족애, 사랑등의 것 보다도 소중한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이다.

이들 인물들의 성격상의 둘째 특징은 돈을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주저 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최고의 善인 돈을 확보하는 행동원리가 바로 합리성에 있다는 데 있다. 한마디

로 말하면, 그들의 행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작업윤리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Dr. Adler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그는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과 인간간의 따스한 감정이나 인간애,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도 저버리고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 온 사람이며, 지금은 돈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끊임없이 Wilhelm의 경제적 실패가 감정적이며 충동적 성격에 있으며, 유약하며 비합리적인 理想主義의 성격에 있다고 아들을 탓한다. 그는 Wilhelm의 가족간의 문제를 들고 나와 따져들어도 태연자약 하며, 아무런 동요도 받지 않는다. Wilhelm의 자동차에 동승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도 Wilhelm의 차가 지저분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가 핸들을 잡은 채로 백일몽에 잠기거나 큰 소리로 몸짓을 섞어가며 동행한 사람과 시비를 걸기가 일수라는 합리적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경제적 파국에서 정신적 파국으로 까지 이르고 있는 Wilhelm을 보고,

What a Wilky he had given to the world ! Why, he didn't even wash his hands in the morning.(p. 41)

The old man kept thinking. You'd never guess he had a clean upbringing, and, What a dirty devil this son of mine is. Why can't he try to sweeten his appearance a little ? Why does he want to drag himself like this ? And he makes himself look so idealistic. (p. 47)

라고 생각한다. 또 그는 Wilhelm의 곤경이 바로 그의 로맨틱한 생각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로서의 애정과 조그마한 경제적 도움을 애걸하는 아들에게 “水治療法(hydrotherapy)”이나 썬보라고 권유하면서, 그는 그대로 정한 규칙이 있으니 그 규칙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가 정한 이 규칙이 바로 능율을 앞세우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합리주의적 행동규칙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규칙을 New York 사회는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러한 행동규칙은 바로 그 사회의 큰 흐름이며, 그 사회는 이 합리적 행동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간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바로 이러한 합리적 행동규칙으로 무장한 이 사회의 理想的 適者型의 인물들이 Dr. Adler와 증권거래소의 German manager 등이다.

It was the manager's business to conceal his opinion of him; he was shrewd, grey, correct (although unshaven) and had little to say except on matters that came to his desk. He must have recognized in Wilhelm a man who reflected long and then made the decision he had rejected twenty separate times. Silvery, cool, level, long-profiled, experienced, indifferent, observant, with unshaven refinement, he scarcely looked at Wilhelm, who trembled with fearful awkwardness. The manager's face, low-coloured, long-nostrilled, acted as a unit of perception; his eyes merely did their reduced share. Here was a man, like Rubin, who knew and knew and knew. (p. 65)

이러한 인물들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유형의 유일한 인물이 바로 Wilhelm이다. 그는 Adler나 German manager와는 달리, 냉철하기 보다는 충동적이고,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며, 사고방식이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비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Wilhelm의 경제적 실패도 그의



이러한 충동적이면서 감정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성격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는 경제공황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저 “운수와 영감(luck and inspiration)”만을 믿고 살아 온 사람이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시작되는 배우가 되려고 Hollywood로 떠난 것도, 그의 배우가 되려는 행위가 무모함을 익히 의식하고, 떠나서는 안될 사유가 백가지도 더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또 갖가지 불안과 공포에 가슴을 조인 끝에, 즉 Hollywood로 나가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는 그 그릇된 길을 결국 택하고만 인물이다. 그의 아내, Margaret와의 결혼도 마찬가지다. Adler가 수차에 걸쳐서 만류하고, 또 Wilhelm 자신도 그녀와 결혼을 안하기로 몇 십번을 결심하고도 결국은 결혼을 했다. Tamkin과의 증권투자는 더욱 그렇다. 그는 Tamkin이 믿지 못할 사기хан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와 투자를 앉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서도 끝내는 그에게 수표를 내어 주고 만다.

그러나 한편으로 Wilhelm의 이러한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인 행위의 결과는 항상 被虐的(masochistic) 성격을 분명히 띠게 된다.<sup>17)</sup> 다시 말하면, 그의 충동적 비합리적 행위는 언제나 그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그는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被虐的 인물(masochist)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Wilhelm은 배우가 되려는 그의 행위가 마치 무슨 무기라도 집어들고 자기 자신을 해치려는 행위와 다름이 없음을, 그리고 Margaret과의 결혼도 고생을 사서 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Tamkin과의 同業도 그렇고 그의 모든 행위가 그렇듯이, Tamkin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고민과 결혼한 사람”, “세상의 고민과 고생에 몸을 바친 사람”이 되고 있다. Tamkin은 Wilhelm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이러한 被虐的 성벽을 지적하면서, “왜 마누라로 하여금 자신을 괴롭히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느냐? 고통과 결혼한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그에게 충고를 한다.

‘Why do you let her make you suffer so? It defeats the original object in leaving her. Don't play her game. Now, Wilhelm, I'm trying to do you some good. I want to tell you, don't marry suffering. Some people do. They get married to it, and sleep and eat together, just as husband and wife. If they go with joy they think it's adultery.’ (p. 105)

Wilhelm의 피학적 성격은 자신의 삶의 고통을 흡족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의 인생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직시하지 않고 잊으려 하다가는 정말로 잊어버릴 우려가 있으며, 그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사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는 자신의 특수한 業若(peculiar burden)를 짊어지고 굴욕감과 무력감을 느껴가며 억누른 눈물을 맛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the business of life, the real business”(p. 61)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고통에 찬 인생을 흡족하게 음미하

17) Saul Below가 그의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는 인물들이 masochism을 갖고 있음은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비평가를 예로 들면 J. J. Clayton과 K. M. Opdahl을 들 수 있다. J. J. Clayton, *Saul Bellow: In Defence of Ma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8), pp. 53-67과 K. M.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pp. 97-99, p. 110, pp. 159-160 참조.

고 있다. 그래서 그는 슬픔과 고통에 이별을 고평하기 보다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Come then. Sorrow !  
Sweetest Sorrow !  
Like an own babe I nurse thee on my breast !

Come then. Sorrow !  
.  
.  
.  
I thought to leave thee,  
And deceive thee.  
But now of all the world I love thee best.(pp. 96-97)

그러나 Wilhelm의 이러한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이며, 피학적 성격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거부하여 물질적 재화 보다는 인간의 따뜻한 감정이나 가족애나 사랑을 고귀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와 영혼의 문제를 계속하여 추구하며, 획일화의 사회 속에서도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부단한 몸부림을 하는 등 그의 理想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Wilhelm의 理想主義의 성격을 부연하여 설명하면, Adler가 가족간의 애정이나 사랑과 같은 정신적인 것 보다는 재화와 같은 물질적인 것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의 가치체계에 젖어 있음에 반하여, Wilhelm은 여전히 인간의 사랑, 특히 가족애를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물질적인 재화에 보다는 시시콜콜한 체면이나 감정같은 것에 마음을 쓰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과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로서의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아버지와 아들간의 정신적 유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Adler에게서 바라는 것도 금전이 아니라 感情(feeling)이었으며, — 이에 반하여 Adler는 Wilhelm의 감정(feeling)을 더럽다고 생각한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로부터 父情을 그리워 하며, 또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만큼의 가치밖에 없다고 믿으며, 拜金主義에 젖어 자식에 대해서도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아버지의 몰애정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What a selfish old man he was ! He saw his son's hardships ; he could so easily help him. How little it would mean to him, and how much to Wilhelm ! Where was the old man's heart? Maybe, thought Wilhelm, I was sentimental in the past and exaggerated his kindness – warm family life. It may never have been there. (p. 31)

사실, 그가 Rojax 회사와 결별하게 된 것도 바로 “감정”이란 물건 때문이었다. 그는 회사의 一部라는 감정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 일해 왔는데, 어느날 Wilhelm을 제쳐놓고 Gerber란 인물을 그의 윗 자리에 앉히자 그의 감정(feeling)이 크게 상하여 회사를 뛰쳐나온 것이다.

그는 감정이나 사랑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사랑을 재화보다도 훨씬 고귀한 것으로 여긴다. 그는 物神主義, 즉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에 대하여 오히려 돈 그 자체에 대하여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회나 Adler의 정신세계보다 자신의 정신세계가

훨씬 아름답고 훌륭하며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Tamkin이 지적하고 있듯이 Wilhelm은 돈을 멀리하고 감정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이며, 인간의 가치는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한편에서 Wilhelm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의 자아와 영혼의 문제이다. 그는 “자아라는 짐”을 짊어지고 삶을 영위해야 하는 숙명에 처해 있으며,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의 중량을 추산할 수가 없다고 여긴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자신의 진짜 영혼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Tamkin라는 이름 속에서 찾아야 하는지, Wilky라는 이름 속에 있는지, 아니면 Velvel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지 理想主義的 번민을 계속한다.

그러나 Wilhelm의 理想主義的 태도는 Adler와의 대립을 통하여 보여 주는 Adler의 가치관의 거부에서, 그리고 그의 세계를 거부함으로써 자유를 향유하려는 Wilhelm의 계속되는 노력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 보다도 Wilhelm은 부친 Adler의 가치체계를 거부하고, 동시에 자유를 추구하려는 그의 의지를 “Adler”라는 姓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 준다. 그의 姓을 버리는 행위가 그러한 상징성을 띠게 되는 것은 그가 부친의 姓을 뺀 채임으로써 동시에 자신에 대한 부친의 평가도 함께 벗어 던져 버렸다고 믿으며, “Adler”라는 姓이 그 종족을 대표하는 호칭인 반면에 “Tommy”라는 이름이 개인과 자유를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자유를 추구하고 있음은 그가 배우가 되려고 하는 행위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Kaskaskia영화사 scout 담당자인 Venice와의 인터뷰에서 “He [Wilhelm] was to be freed from the anxious and narrow life of the average.” (p. 27)라는 말에 매혹되어 부모의 만류도 뿌리치고 자살 행위와 다름 없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Hollywood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처럼 Hollywood로 뛰어 들어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실패를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그의 자유에 대한 그의 충동 때문이었다. 그는 이 배우가 되려는 행위가 자유를 추구하려는 그의 의지의 결과임을 그가 Hollywood로 갔을 때 “Adler”라는 姓을 버리고 그 대신 자유의 상징인 “Tommy”라는 이름을 대신 쓰기 시작함으로써 분명히 보여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편력은 획일화의 사회에 반항하여 자신의 세계가 아름답고 고귀함을 끝까지 고집하며,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자유를 향한 의지는 그가 Margaret과 이혼하려고 애를 쓰며, 또 별거하고 있는 그의 의도에서까지 찾아볼 수 있다. Margaret는 물론 Adler와 Tamkin까지도 Wilhelm의 여성편력에 그의 자유의지가 개재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Adler는 “I didn't run around with fifty women, either. I was not a Hollywood star. I didn't have time to go to Cuba for a vacation. I stayed at home and took care of my children.” (p. 55)이라고 Wilhelm의 여성편력과 자유주의 성향을 나무라고 있다. Tamkin은 Wilhelm에게 “People are always jealous of a man who leaves his wife. And your wife envies you, too. She thinks, He's free and goes with young women.” (p. 102)이라고 말하며, Margaret는 Wilhelm에게 가정을 버리고 나간 것은 그였으며, 자기는 애들을 기르는 고역을 치르고 있으므로 Wilhelm은 자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Wilhelm의 자유추구의 성향에 대하여 비난과 공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 IV

그러면 피학적 理想主義者인 Wilhelm은 이 加虐的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물론, 앞 장에서 Wilhelm의 행동양식을 피학적이며 이상주의적 逸脫者로서 검토함으로써 그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어느 정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이상주의적 일탈자로서 그의 존재방식을 자세히 검토하여 종합해 보면, 그의 특징적 존재양상은 適應不在狀況에서의 소외된 삶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이상주의적 일탈행위는 바로 적응부재의 상황을 낳고 있으며, 적응부재의 상황은 바로 소외의 상황이며,<sup>18)</sup> 또한 소외의 한 양상인 도피(escape)라는 機制(mechanism)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응(adjustment)이라고 할 경우, 그 용어의 사회학적 의미는 하나의 유기체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內的 행동과 外的 행동을 환경의 요구에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며,<sup>19)</sup>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의 욕구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해소되어 욕구저지(frustration)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므로 적응부재 내지 부적응(inadequate adjustment)의 상황이라고 할 경우 그 의미는 환경, 즉 사회의 요구에 하나의 유기체, 즉 인간이 그의 내적·외적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한 상황이며, 또한 욕구가 沮止된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Wilhelm의 적응부재의 상황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의 요구, 즉 가치체계를 거부하고 그의 이상주의적 가치체계를 주장함으로써 야기되는 두 가치체계간의 대립상황이며, 또한 그 대립의 결과 Wilhelm의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그의 이상적 가치체계의 실현이라는 욕구가 저지된 상황이다.

부적응의 한 양상으로서 사회와 Wilhelm의 대립은 제2장과 3장에서 화폐지향적이며 획일화된 가학적 사회와 이상주의적이며 피학적인 일탈자, Wilhelm의 대립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그 대립의 결과 Wilhelm에게 주어지고 있는 욕구좌절의 상황을 검토하면, 그의 욕구좌절의 상황은 그의 이상주의적 정신세계가 이 New York에서는 어디에서도 통용될 수 없음을 절감하는 데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Wilhelm은 자신의 가치체계가 고귀하다고 굳게 믿고 주장을 해 보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의 理想과 가치관을 같이하는 동조자를 단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한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도 마누라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오히려 비웃고 비난을 가한다. 말하자면, 그는 사회적 局外者(outcast)가 되어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가치관념상의 고립(value isolation)을 겪고 있는 것이다.

18) Melvin Seeman은 6가지 소외형태로서 powerlessness, meaninglessness, social isolation을 들고 있는데, Wilhelm의 적응부재의 상황이 바로 소외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Wilhelm의 부적응의 결과가 Seeman이 말한 소외의 6가지 형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鄭文吉, 「疎外論研究」(서울:文學과 知性社, 1978), p.207에서 재인용.

19) Karl Mannheim이 말한 적응의 개념. 김대환, 「사회학」, p. 273에서 재인용.

그러나 Wilhelm이 이러한 좌절의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그의 가치체계를 주장하면 할 수록 그것이 설사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존은 점점 더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점차 자신의 가치관과 존재의 무의미함까지도 의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욕구좌절의 상황에서 지구 상의 온 바닷물이 그에게 밀어닥치고 있고, 또 밀어닥친 파도에 쓸려가는 듯한 무력감(powerlessness)을 느끼며, 無意味의 感情(meaninglessness)에 사로잡히 있는 것이다.

Wilhelm의 사회적 고립과 가치상의 고립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무력감과 무의미의 감정은 그로 하여금 그의 가치체계를 포기토록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무너뜨려 현실세계에 대하여 불가해의 감정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그를 無規範(anomie)의 상태로 몰고가고 있다.

부연하면, Wilhelm은 점차 이 세계는 혼미스럽고, 또 도처에 “the Tower of Babel”(p. 37)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곳이며, Perls의 말대로 이 세상은 미친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제정신인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스런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가해의 상황에서 그는 점차 현실 감각을 잃게 되며, 또 그의 갈피를 잡지 못해 당황해 하는 무질서한 태도 위에 암흑과 혼돈만이 겹치고 덮치고 있음을 느낀다. 이처럼 漸增하는 암흑과 혼돈의 상황에서 Tamkin은 Wilhelm에게 “Bringing people into the here-and-now. The real universe. That's the present moment. The past is no good to us. The future is full of anxiety. Only the present is real—the here-and-now. Seize the Day.” (p. 72)라고 말하여, Wilhelm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체계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해하려 들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고함으로써 무너져가는 그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결정적으로 그를 anomie의 상태로 몰고 간다.

한편, 이러한 무규범의 상태는 결국 그로 하여금 自我를 분열시키고, “identity의 감각”<sup>20)</sup>을 상실케 하고 있다. 왜냐하면, Wilhelm은 가치규범의 파괴로 인하여 자신의 자아와 존재에 대하여 긍정적인 identity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자기 자신은 누구이며, 자신의 진정한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가짜 영혼은 진짜 영혼과 어떻게 다른가 하고 번민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결국 자아(self)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숙명에 처해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진정한 영혼은 Adler가 말하는 Wilky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주장하는 Tommy라는 존재에서 찾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의 祖父가 그를 부를 때 쓰던 Velvel에서 찾을 것인지 자문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Wilhelm의 부적응의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은 그의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neurosis)이다. 이 불안은 심리학에서 말하고있듯이 인간이 욕구좌절의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며, 신경증적 증세는 카아렌 호오니가 말하고 있듯이 문화 중에 발견되는 모순된 가치

20) Erik H. Erikson이 *Identity; Youth and Crisis*에서 “고무적(鼓舞的)인 동일성의 주관적 감각과 계속성의 주관적 감각”이란 의미로 쓴 용어. Erik H. Erikson, 「아이덴티티」, 曹大京 譯 (서울: 三省出版社, 1977), p. 192.

를 개인적으로 조정하고 內射(introjection)<sup>21)</sup> 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으로<sup>22)</sup> 양자 모두 다 적응부재의 정신상태나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양자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분리되어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Wilhelm의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는 먼저 그의 몸가짐과 그의 행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비싼 옷을 입고 있으나, 외모나 복장은 형편이 없어서 더럽고 옷 매무새는 헝클어져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며, 호주머니에는 잡다한 쓰레기와 같은 것들, 말하자면 각종 환약병이나 비벼끈 담배꽂초 그리고 셀로판 노끈이나 잇수시계로 사용하는 빨간 테이프 노끈 등이 잡다하게 들어 있다. 또 식사 전에는 우유나 주스를 마시는 것이 보통인데 커피나 콜라를 마시며, 손톱이 더럽게 자라있는가 하면,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기면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짧은 달걀을 손으로 잡으면 뗏자국이 보일 정도로 불결하다.

그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는 Adler와 대화할 때도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안면과 손가락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경련이 일어나며, 두 발은 마치 급히 집속으로 들어갈 때 신발에 묻은 흙을 매트에 문질러 떨어내거나 하듯이 발을 앞뒤로 움직인다. 또한 그는 어느 정도 냉정을 유지하다 가도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쉽게 격해져서 감기를 잡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Wilhelm이 부적응의 결과 현실감이 둔화되고 상황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정신이나 육체를 약의 힘을 빌지 않으면 통제할 수도 없고, 또 약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오히려 그런 약들이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있는 상태하에 놓여 있음은 그의 불안이나 신경증적 증세와 연결되어 그가 적응부재의 상황하에 처해 있음은 더욱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즉 Wilhelm은 이 갈등과 불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각성제를 먹고나서 곧 진정제를 먹어야 하고, 또 진정제 다음에 이내 곧 흥분제를 먹어야 하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Pervitin이나 Benzedrine을 먹어도 잠이 깨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욕구저지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불안과 갈등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능하면 작은 희생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의 機制(mechanism)를 일으키게 된다. Wilhelm도 적응부재의 욕구저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서 여러 가지 행동기제 중에서도 退行(regression)과 自己否定 그리고 逃避라는 기제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퇴행이란 현재 욕구가 저지되어 전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태에 있어서 이전의 발전단계로 되돌아가서 이전에(예를 든다면 幼少時)에 구했던 것과 같은 목표를 욕구대상으로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手段으로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는 기제를 말한다.<sup>23)</sup> 이 퇴행은 40대 중반이

21) 張秉琳은 "introjection"이란 용어를 "攝取"라고 번역하여, "자기가 존경하거나 혹은 그 힘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대방(個人, 集團, 一般社會)이 지니고 있는 사고방식, 특색, 요구를 무의식 중에 자기가 받아들여 그것이 자기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規準이 되어 가는 機制"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張秉琳, 「一般心理學」(서울: 박영사, 1975), p. 132.

22) S. Stansfeld Sargent. 「社會心理學」 梁會水 譯 (서울: 乙酉文化社, 1979), p. 54에서 재인용.

23) 張秉琳, 「一般心理學」, p. 141.

된 장성한 Wilhelm이 마치 어린애처럼 Adler에게서 사랑을 구하는 행동에서 잘 나타난다. 자기부정이란 욕구저지의 상황에 있어서 외계의 공격이 불가능할 것 같은 외부정세, 혹은 스스로 그것을 억제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외부로 향해 내뿜을 공격성이 반대로 방향을 자기 자신에 향하여 발동할 때 생겨나는 기제이다. 다시 말하면, 외부로 향해질 공격이 발전되어 내부로 자기에게 향해질 때 그것을 內攻이라 하는데, 그 결과로서 자기 부정이 발생하는 것이다.<sup>24)</sup> 이 자기부정의 행위는 Wilhelm이 피학적 성격과 행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Wilhelm은 자신이 훌륭한 아들이 되고 있지 못함에 대하여,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있지 못함에 대하여, 또 그 자신에 대하여는 그가 저질러 온 끝없는 시행착오와 좌절에 대하여, 그 책임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전가하고, 또 스스로 자신에게 실패를 불러들여 고통을 가하며 자기 자신을 처벌함으로써 어느 정도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고, 또 정신적 만족감을 다소 느낌으로써 적응부재에 따른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Wilhelm이 취하고 있는 세계의 도피기제는 좋지 않은 課題나 무서운 대상, 욕구를 저지하는 불쾌한 사태에 대하여 거기에서 도피하여 자기를 지키려하는 기제로서<sup>25)</sup> 그 결과는 앞서 말한 사회적 고립, 가치관념상의 고립, 무력감, 무의미의 감정, 무규범의 상황, 그리고 신경증 증세 등과 함께 바로 소외의 한 양상이 되고 있다.

이 도피기제에 의한 Wilhelm의 행동을 보면, 그는 언제나 New York 사회가 그의 이상주의적 가치체계의 향유라는 그의 욕구를 가로 막고 있고, 또 New York라는 현실 속에서는 그 욕구의 향유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욕구저지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의 가치체계의 향유가 가능한 곳, 즉 그가 꿈에 그리는 理想世界인 田園的 “Roxbury”를 찾아 도피를 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으며, 도피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그 이상세계를 그리며 백일몽과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Wilhelm에게 있어서 이 도피기제가 소외를 낳고 있음은, 바로 도피기제가 그의 이상주의적 성격에 기인하고 있듯이 그의 이상주의적 성격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체계가 누구의 가치체계 보다도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실을 더럽고 불결한 곳으로 간주하려는 그의 이상적 성격 때문에 언제나 低劣한 인간과 현실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며, 또한 백일몽과 같은 소외의 상황으로 도피하여 “Roxbury”를 꿈꾸므로써 마치 욕구를 저지하고 있는 문제의 상황이 해소된 것처럼 느끼며, 잠시 동안이나마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V

필자는 지금까지 Saul Bellow의 *Seize the Day*에 나타난 사회의 특성과 그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검토하여, 먼저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New York 사회가 加虐의 사회임을 논하고, 둘째 그

24) *Ibid.* p. 143.

25) *Ibid.* p. 135.

가학적 사회 속에 등장하는 인물, 특히 Wilhelm이 被虐的 理想主義者가 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셋째 이 피학적 이상주의자인 Wilhelm의 가학적 사회에서의 존재방식을 그의 적응부재의 상황과 소외를 중심으로 defence mechanism 이론을 援用하여 검토했다. 이 세 가지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New York 사회는 1950년대의 산업대중사회로서 그 특징은 物神이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는 화폐지향적 사회이며, Marcuse가 말한 바와같이 부정적 세력이 없는 획일화를 지향하는 일차원적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의 두 가지 특징, 즉 화폐지향성과 획일화의 경향은 그 속에서 생존하는 개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할 때, 그 사회의 지배적 흐름과 획일화에 동조치 않는 개인에 대하여 언제나 위협적이고 통제하며 생존까지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加虐性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화폐지향적이며 획일화된 가학적 사회 속에는 두 부류의 인물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Adler, Tamkin, Margaret을 위시해서 Wilhelm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로서 사회의 화폐지향적 가치관을 부정없이 수용하며 획일화에 순응하는 일차원적 순응주의 인간들이다. 그들은 가치기준을 화폐에 두고 능율과 합리성을 그들의 행동원리로 삼는다. 이에 대하여 Wilhelm은 충동적이며, 감정적이고, 비합리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그러한 그의 성격은 그를 바로 被虐的 인물로 만들고 있으며, 그 비합리적이고 피학적인 성격은 사회의 획일화된 가치관에 반항하여 물질적 재화보다는 정신적 애정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자아와 영혼의 문제에 번민하며, 획일화의 사회에서도 자유를 추구하고 하는 理想主義에 뿌리를 박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는 가학적 사회 속의 피학적 이상주의자라 할 수 있다.

셋째, 가학적 사회 속에서 Wilhelm의 존재양상은 바로 욕구좌절의 적응부재상황이며 소외의 상황이다. 그는 사회적 고립과 가치관념상의 고립, 무력감과 무의미의 감정, 무규범의 상황, 자아의 분열과 identity 감각의 상실, 그리고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저지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행동기제를 보여 준다. 그 첫째는 퇴행이며, 둘째는 自己否定이며, 셋째는 도피가 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둘째의 자기부정은 Wilhelm은 피학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으며, 셋째의 도피는 바로 소외의 양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부적응의 양상과 防禦機制에 의한 행동은 Wilhelm의 행동양식이며 동시에 존재양상이 되고 있다.



## Summary

### Sadistic Society and Masochistic Idealist in *Seize the Day*

Yang Kyoung-zoo

As K. M. Opdahl says, Saul Bellow is a novelist who is compelled by a single issue, that is human dilemma in the modern society, and he has persistently dealt with the problem of human existence in all his novels.

In *Seize the Day*, Bellow also presents the same problem through the economic and spiritual downfall of Tommy Wilhelm who declines to accept mammonism, the trend of the society and who insists that his mental world is more precious than that.

Therefore, to promote the better appreciation of Bellow's literary theme and his novel, *Seize the Day*, the writer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ety and the characters in the nove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and obtains the results as following:

1) The society in the novel is a money-and-uniformity-oriented one, that is a one-dimensional society, and its characteristic lies in sadism. Its sadistic character comes from mammonism and conformity.

2) In the novel, two kinds of people are depicted. The one — Dr. Adler, Tamkin, Margaret, etc. — are sadistic one-dimensional conformists who accept mammonism without any hesitation and conflict. The other — Wilhelm — is a masochistic and idealistic deviant in the mammonish, uniformity-oriented society.

3) In order to survive in that society, Wilhelm adopts the following mode of existence and activity as a result of "inadequate adjustment" and "defence mechanism": a) social isolation, b) value isolation, c) powerlessness, d) meaninglessness, e) anomie, f) loss of self and identity, g) anxiety and neurosis, h) regression i) masochism j) escape, etc.